

家族利己主義行動에 대한 社會人口學的 變因과
家族主義 價値觀의 影響

The Influence of the Social-demographic Variables and Familism on the
Family-selfish Behavior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金 順 玉

Dept. of Home Management

Sungkyunkwan University

Prof.: Soon Ok, Kim

부교수: 趙 熙 仙

Associate Prof.: Hee Seon, Cho

박사과정: 柳 京 希

Doctoral Course: Kyoung Hee, Ryu

석사: 俞 炫 汀

Hyun Jung, Yoo

석사: 李 那 美

Nah Mee, Lee

본 연구는 급속한 산업화와 현대화 과정에서 파생된 과소비, 호화혼수, 재벌의 변칙적인 富의 세습, 상류층內의 배타적인 결혼, 지나친 교육열, 환경오염 등과 같은 다양한 가족이기주의 현상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가족이기주의의 예방과 개선을 도모해 나갈 기본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혼남녀 333명을 대상으로 가족이기주의 행동의 실태와 이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주의 가치관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정내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beta=.238$), 교육수준($\beta=.237$), 소득($\beta=.188$), 가족우선성의식($\beta=.156$),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연대의식($\beta=-.155$) 이었고, 교육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소득($\beta=.233$), 성별($\beta=.200$), 연령($\beta=.176$), 교육수준($\beta=.156$)이었으며, 환경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소득($\beta=.263$)인 것으로 나타났다.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오늘의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 파소비, 무질서한 교통질서, 환경오염, 책임의식의 결여, 책임수행의 부실 등 사회 전반에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의식의 개혁과 성장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에서 급속한 산업화에 기인하며, 이로 인하여 정신적 가치가 물질적 가치에 종속되는 배금주의(mammonism)를 낳았다.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는 파렴치한 행위, 혹은 범죄조차도 서슴지 않는 극도의 이기주의가 성행하고 있다. 작게는 내집의 주차공간 마련을 위한 도로의 불법이용이나 차단에서부터, 크게는 거액의 뇌물이 오고가는 각종 비리 및 탈법, 탈세 등이 그 예가 된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개인주의의 본질이라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이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이기주의라 하겠다. 이기주의는 사회 구성원간의 화합을 방해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 나아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世界化 구현에도 장애가 된다.

우리나라는 혈연관계와 가족운리를 인륜의 근본으로 하는 儒敎思想의 영향을 받아 家를 개인보다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家族利己主義의 근원이 된다. 이러한 가족주의 가치관이 우리사회에 부정적으로 기능하였다고 주장하는 견해(최재석, 1964; 육영수, 1982; 조혜정, 1985)들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이상의 연구들은 家族利己主義行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된 것이 아니므로 家族主義와 家族利己主義간의 因果關係를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는 가족주의에만 한정된 것이었을 뿐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구성원의 화목한 공존을 막는 가족이기주의의 실태가 어떠한지, 무엇에 영향을 받아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족이기주의에 대한 연구는 첫째, 가족이기주의가 가정과 사회의 여러영역과의 상호작용 중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파소비, 파다혼수, 여아낙태, 뇌물이 오고간 인사부정, 상류층内の 배타적인 혼인, 부정입학, 고액과외, 파다한 촌지, 주소지 변경, 쓰레기 처리문제, 주차난으로 인한 거리환경문제, 가

전제품이나 가구 등의 폐기물을 거리에 함부로 방치하는 행위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 둘째, 가족이기주의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중요한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크게 가정내, 교육, 환경영역으로 대별되어지는(공미혜, 1992) 가족이기주의의 행동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가족이기주의의 예방과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족이기주의의 행동의 실태는 어떠한지, 가족이기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주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가족이기주의를 예방하고 보다 건전한 가족으로의 自淨역할을 하고자 일조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문제

1) 연구문제 1: 가정내, 교육, 환경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의 실태는 어떠한가?

2)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주의 가치관은 가족이기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1)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주의 가치관은 가정내 가족이기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주의 가치관은 교육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3)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주의 가치관은 환경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가족주의 가치관, 가족이기주의 행동에 대한 용어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주의 가치관: 가족 우선성의식, 부계가문의 영속화의식, 부모공경의식,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 등의 4가지 측면에 대하여 영속적 신념을 가진 특정한 행동양식을 말한다.

(2) 가족이기주의 행동: 반사회적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크게 3가지 영역 즉 가정내(파소비, 파다혼수, 여아낙태, 뇌물이 오고간 인사부정, 상류층内の 배타적인 혼인 등), 교육(부정입학, 고액과외, 파다한 촌지, 주소지 변경 등), 환경(쓰레기 처리문제, 주차

난으로 인한 거리 환경문제,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의 폐기물을 거리에 함부로 방치하는 행위 등)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을 말한다.

II. 가족이기주의의 배경 및 행동실태

1. 가족이기주의의 배경

家族主義란 가족에 대한 애착내지 관심이 다른 의욕과 동기를 압도하고 행동의 주도권을 잡는 생활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김태길, 1982). E.M.Rogers는 가족주의를 개인 목표의 가족 목표에 대한 복종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육영수(1982)는 현실적 연대에 높은 가치를 두는 가족에 대한 충성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가족주의는 가족을 개인이나 다른 집단보다 우위에 두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으로(옥선화, 1989), 자신이 소속된 가족이나 집단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이나 노고를 타산없이 희생할 수 있는 資質과 孝를 핵으로 하여 가족결속력을 높이게 한다(김태길, 1982; 옥선화, 1989). 특히 효를 핵으로 한 가족집단에 대한 충성은 자연스럽게 다른 집단이나 국가 등 더 큰 공동체로 확대 적용되어 정치체계를 정당화하고 사회질서를 안정시켰으며 개인의 자아정체감 확립, 스트레스 해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옥선화, 1989).

그러나 반면에 가족주의는 현대사회의 중심가치인 개인주의와 상치되며, 개인의 자율성이 무시되는 측면이 허다하고(조혜정, 1985) 대외적으로 자기가족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가족위주의 폐쇄적 성격을 띠므로써 자칫 가족이기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육영수(1982)는 가족주의가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가족주의를 폐쇄적이며 성취동기를 저해하는 가치라고 하였고, 아울러 가족주의가 지역사회 결속력과 발전지향성에 대해 不的 相關關係를 갖는다고 결론지음으로써 다분히 가족주의의 역기능적인 측면을 시사해 주었다.

과거 전통사회의 가족주의는 현대 핵가족의 삶을 위한 공리적 가족주의로 변화되었고, 이러한 가족주의의 변형은 가족을 하나의 경쟁단위로 만들어 다른 가정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하였으며(공미혜, 1992),

이것이 가족이기주의의 기초가 되어 개방적인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2. 가족이기주의의 행동실태

1) 가정에서의 가족이기주의의 행동

가정에서의 과소비, 과다혼수, 여아낙태, 뇌물이 오고간 인사부정, 상류층내의 배타적인 결혼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가족 이기주의 모습을 살펴보겠다.

첫째, 과소비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1, 92년도의 통계청자료, 국민경제 교육연구소는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비성향이 커지고 과소비풍조가 보여짐을 지적하고 있는데(국민일보, 1992. 9. 24; 서울신문, 1993. 4. 9), 이러한 과소비 풍조는 87~89년에도 팽배하였으며, 당시 과소비를 주도하였던 연령은 35~39세, 50~54세였고(국민일보, 1992. 9. 24), 상류 계층 자체들 중 일부가 사치, 퇴폐 행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일보, 1993. 7. 11).

둘째, 과다혼수 문제이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혼수를 부모의 誠意 표시라고 여기고 있으며, 이런 감정적 차원에서 혼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과다혼수 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6년 한국여성개발원이 각 계 각층의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한 '건전한 혼례 혼수'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과다혼수 풍토의 첫째 원인으로 시어머니들이 혼수의 양과 질로 며느리를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이것은 1988년 한국부인회의 조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최성애, 1993).

70% 이상의 젊은이가 TV,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장롱, 다리미를 혼수의 필수품목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수 혼수품목을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인 대신 농촌출신보다는 도시출신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중류층보다는 상류층이 더 많은 살림살이를 마련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일보, 1991. 1. 16).

셋째, 여아낙태의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남아선호사상은 의학 및 과학 기술을 남용한 태아의 성감별을 통해서 낙태 수술을 감행하므로써

출생시 남녀 수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였으며(지하룡·박재봉, 1988), 앞으로도 이러한 성비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중앙일보, 1992. 8. 5; 국민일보, 1993. 2. 1; 중앙일보, 1993. 7. 11).

네째, 인사비리의 문제이다.

1992년 한해동안 금품수수 비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정부기관은 내무부 및 서울시 등 지방행정기관이고 그 다음으로는 치안, 조세 행정기관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일보, 1993. 2. 19). 또한 교육공무원의 금품수수와 공금횡령·유용등 비리가 배 가까이 급증하여, 교육현장의 각종 부조리제거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밝혀졌다(중앙일보, 1992. 8. 23).

부패에 개입한 일반인들의 직업은 기업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문직업인, 자영업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적으로 부패에 관계한 일반인들의 경제적 수준은 주로 중·상층 이상이고 특히 6공 들어서는 상류층의 비율이 78%에 이르는 반면 하류층은 전혀 없어 이같은 양상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중앙일보, 1993. 1. 27).

다섯째, 상류층내의 배타적인 결혼이다.

한국의 가장 큰 기업 1백개의 총수들 중에서 자녀 혹은 손주를 결혼시킨 사람들의 사돈 직업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재벌 총수 아들들의 장인, 즉 며느리 집안 중 관계와 정계는 33.3%, 기업계는 40%였는데 관계와 정계 집안의 며느리를 얻은 경우 장인이 장·차관 출신인 사람이 24명으로 제일 많고 전·현직 대통령이 2명, 국회의원이 8명, 사법계 출신 3명, 군장성 2명, 학계 9명, 금융계 8명 그리고 언론계 3명이다. 또 재벌 총수의 딸들이 출가한 집안의 시아버지의 직업을 보면 기업계가 40%, 비기업계가 60%인데, 이 중 비기업계 사돈의 직업별 분포는 행정부 12명, 입법부 8명, 금융계 9명, 학계 7명 그리고 의사 4명으로 나타났다(공정자, 1990).

이렇게 상류층끼리 결혼을 함으로써 부모의 지위와 재산이 자녀들에게 상속됨은 물론 부모들(사돈)끼리도 서로 이해결속을 공고히 하여 기존의 지위와 재산을 더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교육에서의 가족이기주의의 행동

현대의 가족은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生殖을 통한 가계계승기능이 약화되고 교육을 통한 자녀의 사회화기능이 커지면서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순조로운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조건에 가까운 헌신을 하여 극단적 가족이기주의를 낳고 있다.

『돈이면 못해낼 것이 없다』는 배금주의와 『내 자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라면 범죄도 불사하겠다』는 입시만능주의는 우리교육을 回生不能의 상태로 황폐화시키고 있다. 동아일보 기획취재팀의 설문조사 결과(동아일보, 1995. 3. 22)에 따르면 국민학생 자녀를 둔 조사대상 학부모 4백 15명 중 3백 8명이 1~2회의 촌지를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건네주었다고 응답했으며, 4회 이상 촌지를 주었다는 응답자도 36명(9%)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미 촌지는 우리 사회에 보편화된 병폐임을 밝히고 있다. 액수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강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5~10만원 미만이 87.6%인 반면 강남(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지역에서는 5~10만원 미만이 46.9%, 10~20만원 미만이 21.8%였고 20만원 이상도 2.0%를 차지했다. 촌지를 주는 이유로서는 50.4%가 교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고 촌지를 준 후 효과가 있었는가의 질문에는 있었다가 39.3%, 없었다 혹은 모르겠다는 응답은 47.7%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보다는 입시학원과 비밀과외를 더 신뢰하는 그릇된 풍조에 편승해 입시산업은 날로 번창하고 있다(한국일보, 1993. 5. 25; 1993. 6. 6).

3. 환경에서의 가족이기주의의 행동

서울 YWCA조사 결과 한국 주부들의 88.7%가 환경보호를 위해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는 매연·먼지 등 공해(85.7%), 자원낭비(74.3%), 수도물 오염(73.5%), 식품의 농약오염(68.3%), 오존층 파괴(60.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환경문제를 줄이기 위해 상품구입시에 공해유발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응답한 주부는 불과 25.3% 뿐

이어서 생각과 실생활에서의 행동은 큰 차이가 있었다(중앙일보, 1992. 2. 26). 한편, 서울의 주차난은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으나 실제 자가 주차장의 확보율은 38%밖에 되지 않아(매일경제신문, 1993. 2. 6) 주택가와 아파트 등지에서는 이중주차나 진입로 무단주차로 통행이 불가능하기 일쑤이며, 이면도로의 상가부근에서는 건물소유주와 인근주민간에 주차문제를 둘러싼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집 앞 골목길에 주차구획선을 긋는다는든가, 팻말을 세워놓는 등 마관상·통행상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단독주택지역에 다가구 주택이 들어서면서 역시 주차난, 일조권시비등의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1993년 5월 말 현재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된 다가구 주택은 1만2천1백65개동에 5만8천8백43가구로 전년도에 비해 가구수 기준으로 50.2배나 증가하였는데(동아일보, 1993. 6. 26), 가옥밀집지역에 다가구주택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인접한 단독주택과의 일조권시비와 극심한 주차난, 쓰레기난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III. 연구 방법

1. 측정도구

1) 가족주의 가치관척도

옥선화(1986)의 “가족주의 가치 측정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작성된 가족주의 가치 측정도구 25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25문항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0으로 나타났다.

2) 가족이기주의 행동척도

공미혜(1992)의 연구에서 가족이기주의 양상을 가정내, 교육, 환경의 세 영역으로 대별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가정내 가족이기주의 양상 7문항, 교육영역에서의 가족이기주의 양상 5문항, 환경영역에서의 가족이기주의 양상 5문항으로 모두 17문항을 작성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17문항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77로 나타났다.

3) 사회인구학적 특성척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직업, 성장지역의 6문

항을 사회인구학적 특성 척도로 작성하였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혼남녀로, 1993년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45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하여 1993년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450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450부 중 354부를 회수하였으며, 내용의 기체가 부실한 21부를 제외하고 333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과 같다.

총 333명의 조사대상자 중에서 여자는 236명(70.9%), 남자는 97명(29.1%)으로 여성표집이 많았고, 연령은 30대가 112명(33.6%), 40대가 94명(28.2%), 50세 이상 77명(23.1%), 20대가 50명(15.1%)이었다. 교육수준은 대졸이상 162명(48.6%), 고졸 142명(42.7%), 중졸이하 29명(8.7%)이며, 소득은 100~150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 인	구 분	N(%)
성 별	여 성	236(70.9%)
	남 성	97(29.1%)
연 령	20 대	50(15.1%)
	30 대	112(33.6%)
	40 대	94(28.2%)
	50대 이상	77(23.1%)
교육수준	중졸이하	29(8.7%)
	고 졸	142(42.7%)
	대졸이상	162(48.6%)
소 득	100만원 미만	45(13.5%)
	100-150만원 미만	100(30.0%)
	150-200만원 미만	75(22.5%)
	200-300만원 미만	69(20.7%)
	300만원 이상	44(13.3%)
성장지역	도 시	228(68.5%)
	농 촌	105(31.5%)
직 업	전문직	49(14.7%)
	관리직	33(9.9%)
	사무직	56(16.8%)
	판매/서비스직	71(21.2%)
	제조/영세자영업	9(2.7%)
	단순노무직	2(0.6%)
	주부/무직	113(33.9%)

표 2. 가정내, 교육, 환경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의 실태

	M	SD	실제 점수범위	가능 점수범위	N	M/문항수
가정내에서의 가족이기주의행동	11.80	2.89	7-21	7-28	284	1.69
교육에서의 가족이기주의행동	9.30	2.81	5-17	5-20	270	1.86
환경에서의 가족이기주의행동	8.79	2.09	5-14	5-20	172	1.76

*무응답자는 missing처리하여 사례수가 다름

만원미만 100명(30.0%), 150 200만원미만 75명(22.5%), 200~300만원미만 69명(20.7%), 100만원 미만 45명(13.5%), 300만원 이상 44명(13.3%)으로 조사 대상자의 교육수준과 소득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3. 자료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특성과 가족이기주의 행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가족이기주의 행동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주의 가치관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가정내, 교육, 환경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의 실태

가정내, 교육, 환경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가정내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 정도는 평균 11.80으로 중간점수인 17.5보다 낮고, 가능 점수범위 7~28점 중에서 실제 점수범위는 7~21점이다. 교육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 정도는 평균 9.30으로 중간점수인 12.5보다 낮고, 가능 점수범위 5~20점 중에서 실제 점수범위는 5~17점이다. 환경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 정도는 평균 8.79로 중간점수인 12.5보다 낮고, 가능 점수범위인 5~20점 중에서 실제 점수범위는 5~14점이다. 가정내, 교육, 환경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정도는 모두 중간점수보다 낮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내, 교육, 환경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 정도를 비교해 보기 위하여 평균을 문항수로 나누어 본 결과, 교육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환경, 가정내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 순으로 나타났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주의 가치관이 가정내, 교육, 환경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성장지역, 직업)과 가족주의 가치관(가족우선성의식, 부계가문의 영속화의식, 부모공경의식,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이 가정내, 교육, 환경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하였으며,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계수와 Durbin-Watson계수¹⁾를 통하여 다중공선성에 있어서 안전함과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주의 가치관이 가정내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별($P < .001$), 교육수준($P < .001$), 소득($P < .01$), 가족우선성의식($P < .05$),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P < .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가정내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의 전체분산 중 14.9%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인은 성별($\beta = .238$)이며, 그 다음으로 교육수준($\beta = .237$), 소득($\beta = .188$), 가족우선성의식($\beta = .156$),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beta = -.155$)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모두 .7 미만이었으며, 각 회귀모형의 Durbin-Watson계수는 1.639 98, 1.64096, 1.74893 이었다.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주의 가치관이 가정내, 교육, 환경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중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가정내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 N=284		교육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 N=270		환경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 N=172	
		B	β	B	β	B	β
사회 인구 학적 변인	성 별@	1.503	.238***	1.264	.200**	.229	.052
	연 령	.012	.037	.057	.176**	-.009	-.045
	교육수준	.968	.237***	.609	.156*	.255	.087
	소 득	.005	.188**	.006	.233***	.004	.263**
	직 업	-.021	-.016	-.028	-.023	-.087	-.092
	성장지역@	-.128	-.021	.435	.073	-.302	-.063
가족 주의 가치 관	가족우선성의식	.139	.156*	.098	.113	.074	.111
	부계가문의 영속화의식	.027	.049	-.016	-.029	-.042	-.105
	부모공경의식	.103	.116	-.015	-.017	.016	.024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	-.076	-.155*	.009	.019	.002	.006
	Constant	5.395		1.274		7.145	
F	4.791***		4.741***		1.525		
R ² (adjusted R ²)	.149(.118)		.155(.122)		.087(.029)		

* P<.05 ** P<.01 *** P<.001 @은 가변인

- 무응답자는 missing처리하여 사례수가 다르다.
- 각 변인의 점수화 및 가변인 처리는 다음과 같다.

성 별 : 여성=1, 남성=0

성장지역 : 도시=1, 농촌=0

교육수준 : 중졸이하=1점, 고졸=2점, 대졸이상=3점

직 업 : 주부/무직=1점, 단순노무직=2점, 제조/영세자영업=3점,

판매/서비스직=4점, 사무직=5점, 관리직=6점, 전문직=7점

즉 남성보다는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우선성의식이 많을수록,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이 적을수록 가정내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과소비, 과다혼수, 여아낙태, 뇌물이 오고간 인사부정, 상류층내의 배타적인 결혼 등과 같은 가족이기주의 행동은 주로 여성에 의해 주도되기 쉽고, 교육수준과 소득이 높아지면서 가족이기주의 행동을 일으키기 쉬운 상황이 되므로 배운 자와 가진 자에 대한 의식교육의 측면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중류층보다는 상류층이 더 많은 혼수를 마련하고 싶어하고(한국일보, 1991. 1. 16),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과소비 풍조가 보여지고 있다(국민일보, 1992. 9. 24; 서울신문,

1993. 4. 9)는 조사결과와 일치되고 있다. 한편 과거 전통사회의 지배규범이었던 가족주의 가치관은 가족 결속력 증가, “孝”개념의 확대로 인한 사회질서의 안정, 개인의 자아정체감 확립, 스트레스 해소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옥선화, 1989), 긍정적 측면의 본질이 가족에서 사회로 확대 적용되지 못하고 가족안에서의 폐쇄적인 의식을 갖는 반사회적인 가족이기주의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家의 개념이 축소된 현대 핵가족화된 사회에서는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이 약화되고 자기만의 핵가족을 지나치게 우선시하는 의식을 갖으므로써 이것이 가족이기주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사려된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주의 가치관이 교육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별($P<.01$), 연령($P<.01$), 교육수준($P<.05$), 소득($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교육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의 전체분산 중 15.5%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인은 소득($\beta=.233$)이며, 그 다음으로 성별($\beta=.200$), 연령($\beta=.176$), 교육수준($\beta=.156$)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입학, 교액과의, 과다한 촌지, 주소지 변경 등과 같은 교육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은 배금주의와 입시만능주의로 인하여 유난히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 부모, 특히 학부모기 연령의 어머니들에게서 보여지고 있으며, 교육수준과 소득이 높아지면서 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서 고소득 학부모, 고학력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인식개혁이 필요하다고 사려된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주의 가치관이 환경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득($P<.01$, $\beta=.263$)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이었으며, 환경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의 전체분산 중 8.7%를 설명해 주고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주의 가치관이 가족이기주의 행동을 설명해 주는 설명력은 가정내, 교육에서 보다도 환경에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8.7%는 소득 변인만이 갖고있는 설명력으로 그 비중이 크다고 보겠다. 즉 쓰레기 처리문제, 주차난으로 빚어지는 거리환경문제, 가전제품·가구 등의 폐기물을 거리에 함부로 방치하는 행위 등과 같은 환경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은 소득이 높을수록 더욱더 많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 되므로 경제적 안정과 함께 사회제 분배라는 사회적 정의가 더욱 필요하리라 사려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소득이 가정내, 교육, 환경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에 모두 영향을 미쳤고, 성별과 교육수준은 가정내, 교육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여성, 고학력자, 고소득자에 대한 가족이기주의 행동의 우려가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주의 가치관 중 가족우선성의식은 가정내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

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교육과 환경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에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지나친 가족우선성의식을 자제하고 家族主義 價値觀의 순기능적인 면을 현대사회에 알맞게 변화·발전시켜 바람직한 가치로 계승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V. 요약 및 결론

우리사회의 가족이기주의는 급속한 산업화와 현대화 과정에서 파생된 현상으로 과소비, 호화혼수, 재벌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 상류층간의 배타적인 결혼, 지나친 교육열, 환경오염 등과 같은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한국 특유의 가족이기주의는 혈연중심의 가부장적인 가족주의가 시대적 상황, 부부중심의 핵가족화와 전문화된 산업구조에 따른 개인주의와 서로 맞물리면서 유발된 것으로(공미혜, 1992), 사회나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利己利家의 생각을 먼저 하게 하여 사회의 발전과 결속, 정신적 근대화의 발전을 저해한다(육영수, 198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이기주의 행동을 재인식하고 개선해 나갈 기본자료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가족이기주의 행동의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주의 가치관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내, 교육, 환경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 정도는 평균 11.80, 9.30, 8.79로 모두 중간점수보다 낮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은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응답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가정내, 교육, 환경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정도를 비교해 보면, 교육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환경, 가정내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내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P<.001$), 교육수준($P<.001$), 소득($P<.01$), 가족우선성의식($P<.05$),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성의식($P<.05$)으로, 이들 변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인은 성별($\beta=.238$)

이며, 그 다음으로 교육수준($\beta=.237$), 소득($\beta=.188$), 가족우선성의식($\beta=.156$),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beta=-.155$)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우선성의식이 많을수록,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이 적을수록 가정내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교육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P<.01$), 연령($P<.01$), 교육수준($P<.05$), 소득($P<.001$)으로, 이들 변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인은 소득($\beta=.233$)이며, 그 다음으로 성별($\beta=.200$), 연령($\beta=.176$), 교육수준($\beta=.156$)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제, 환경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소득($P<.01$, $\beta=.263$)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환경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가정내, 교육, 환경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실태는 그 평균점수가 높지 않아 전반적으로 그 심각성의 정도가 높지는 않으나 여성, 고학력자, 고소득자 집단에서 가족이기주의 행동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과정을 등한시하고 결과만을 추구하는 수단적이고 이기적인 가치관이 경제적, 교육적 기득권을 가진 계층에서 가족이기주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에서 인간화 교육을 통해 삶의 과정을 중시하는 共同體人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적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주의 가치관 중 가족우선성의식은 가정내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교육과 환경에서의 가족이기주의 행동에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인 가치규범인 家族主義 價値觀의 순기능적인 면을 현대사회에 알맞게 변화·발전시켜 바람직한 가치로 계승해 나갈때 현재의 가족의 모습은 더욱더 건강하리라 사려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혼남녀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조사대상자들이 가족이기주의 행동을 묻는 문항들에 과연 진실되게 응답하였는가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갖고 있으나, 家族利己主義化 되어가는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을 하게 하였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에서 책임의식을 지니고 실천하는 사회성원을 길러내는 재사회화 교육의 필요성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이기주의 행동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척도개발연구와 보다 실천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해 줄 연구가 수행되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공미혜(1992). 가족이기주의에 대한 여성학적 비판. 가족학논집 제 4 권. 1-19.
- 2) 공정자(1990). 재벌가의 혼인 유형. 한국가족론 서울: 까치.
- 3) 국민일보(1993). 취학아동 매년 격감. 1993, 2, 1.
- 4) _____(1992). 내집 가진 40대가 소비풍조 주도. 1992, 9, 24.
- 5) 김태길(1982). 한국인의 가치관연구. 서울: 문음사.
- 6) 동아일보(1993). 단독주택지역에 <다가구>신축 일조권 시비 잇따라 1993, 6, 26.
- 7) _____(1995). 국고초저지, 1995, 3, 22.
- 8) 매일경제신문(1993). 서울주차난 갈수록 심각, 1993, 2, 6.
- 9) 서울신문(1993). 월 119만원 벌어 72만원 지출(한국인 작년 소비형태). 1993, 4, 9.
- 10) 세계일보(1993). 작년 비리 지방행정기관 최다. 1993, 2, 19.
- 11) 육선화(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12) _____(1986). 가족주의가치 측정을 위한 기초 연구-가족주의 척도 제작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4(3).
- 13) 육영수(1982). 가족주의가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 14) 전병재(1988). 한국 여성에 있어서의 가족주의와 개인주의. 가치. 서울:宇石출판사.
- 15) 조혜정(1985). 가족윤리-공리적 가족집단주의와

- 도덕적 개인주의. *현대사회와 가족*.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편.
- 16) 중앙일보(1992). 주부 98% 환경 상품을 쓰겠다. 1992, 2, 26.
- 17) _____(1992). 국교생 〈여소남다〉 심화. 1992, 8, 5.
- 18) _____(1992). 교육공무원 비리 급증. 1992, 8, 23.
- 19) _____(1993). 대담해지고 자발적 경향. 1993, 1, 27.
- 20) _____(1993). 2000년 처녀 100명-총각 120명. 1993, 7, 11.
- 21) 지하룡·박재봉(1988). 종합병원 출생아의 성비에 관련된 요인. *한국인구학회지* 11(2) 67-76.
- 22) 최성애(1993). *혼수전쟁*. 서울: 도서출판 청산.
- 23) 최재석(1964). 한국 가족의 전통적 가치의식. *아세아연구* 7(2).
- 24) 한국일보(1991). 예단은 형제자매까지만. 1991, 1, 16.
- 25) _____(1993). 불법과의 5백 20 곳 적발. 1993, 5, 25.
- 26) _____(1993). 〈음성과외〉 양성화로 자율정화 노력. 1993, 6, 6.
- 27) _____(1993). 국내·해외파 합류 요지경. 1993, 7, 11.